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연구

정영미*, 남부현**

선문대학교 한국학과 박사수료*, 선문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Social Support in the Education and Care of Children of Married Migrant Women

Young-mi Jung*, Bu-Hyun Nam**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Professor,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로 6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4개의 범주에서 총 24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10개의 대주제로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타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었다. 특히, 남편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도움을 주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랐다. 시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에너지로 나타났다. 친정엄마는 심리적인 지지자이며 자녀의 이중언어교육과 모국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주변의 한국친구는 자녀를 키우며 필요한 한국문화와 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모국친구는 모국어로 소통하며 자녀 양육정보와 함께 문화적 동질감과 연대의식 형성을 도왔다. 사회적 범주에서 한국사회의 인터넷은 모국가족과 초국가적 연결은 물론 자녀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 공공기관 그리고 법과 제도 등도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한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자 국적 취득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공적인 자격을 갖추며 스스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교육과 돌봄 과정에 초국가적인 가족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며 자신과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였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자녀 교육과 돌봄, 사회적 지지, 양육경험, 현상학적 질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 of social support in the education and rearing of children of immigrant wo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found its essential meaning. First of all, the husband's social support was very important, but the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had a different effect on childrearing and education. Parents-in-law had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child rearing and education of them due to cultural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ir own mother was a strong support that gave them great strength just by being there, and as their children grew up, they regarded their mother as the source of bilingual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Other supporters around them were Korean friends who connected Korean society by sharing information on child care and education. Friends who spoke and communicated in their native language wer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ers that bonded the same experience of parenting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In conclusion,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cted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by using a multi-layered social support system as well as a transnational family network in the process of child education and care.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laws, systems, and policy support so that the social support system can be further strengthened at the family, community, and transnational levels for the education and care of children of immigrant wo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Key Words Marriage migrant women, Child education and care, Social support, Parenting experience,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Received 17 Aug 2023 Revised 15 Sep 2023
Accepted 22 Sep 2023
Corresponding Author: Bu-Hyun Nam
(Sunmoon University)
Email: namx0015@sunmoon.ac.kr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전지구화의 영향으로 지난 30년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3년 6월 2,411,27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37%이다(법무부, 2023)[1]. 이들 중 결혼이민자는 172,931명이며 다문화가정 2세는 28만 명을 넘어섰다[2].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다양한 다문화적 사회현상과 담론을 불러일으키며, 국내 거주 이주민의 정착과 문화적응, 일반 한국인과의 소통과 교류, 사회통합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시적인 증가는 가정 내 자녀 교육과 돌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심과 해결책을 고민하게 한다.

부모 역할은 실질적으로 자녀가 출산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부모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 대한 신념과 가치는 부모되기 전부터 시작된다. 즉, 다른 문화권에서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은 국가나 민족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다르므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자녀 교육과 돌봄에 있어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잃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3].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업이므로 이들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갖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주변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4].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해 가정은 물론 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다층적인 사회적 지지는 필수적이다.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것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로 그 결과가 나타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지지의 본질과 의미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과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 있어 사회적 지지 체계는 어떠한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밝히고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녀 교육과 돌봄 관련 사회적 지지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을 의미하며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이주여성, 여성 결혼이주민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남성과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의 결혼이 빈번해 지면서 조선족 동포, 동남아 국가들 및 구소련 지역 독립국가들의 여성들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며 한국으로 이주가 가시화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종교단체를 통해 일본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중국이나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5].

‘보살피다’라는 의미에서 양육과 돌봄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양육은 주로 영유아기 자녀에 초점을 맞춘다. 학령기에 이르는 아동기는 양육과 더불어 교육적 의미가 더해지므로 학령기 자녀는 폭넓은 의미의 돌봄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습자에게 가르침을 행하는 일로만 국한하는 경향이 높고, 돌봄은 보호와 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는 비전문적인 일, 교육은 전문적인 일로 인식하며, 보호와 교육을 서열화하기도 한다[6]. 교육과 돌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돌봄 안에서 교육이 이어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관계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돌봄은 아동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는 일이며 세상에 대한 학습이므로 아동기는 보호, 발달, 교육이 통합되어야 하고 돌봄은 교육과 분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돌봄은 보호와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7,8].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또는 조언, 도움의 행동으로 수혜자에게 긍정적 정서와 행동의 효과를 준다[9,10]. 특히, 어머니의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에게 사랑과 돌봄이 주어지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외부와 의사소통하고 상호협력하는 관계망을 의미한다[11,12]. 발달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이나 친구의 지지는 가정기능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부모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유아는 사회성 발달과 애착 그리고 사회적 역할 등을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14].

특히, 흥은미와 신승연은 사회적 지지를 공식적 지지(일반사회서비스, 양육지원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 등)와 비공식적 지지(배우자, 시댁가족, 친정가족, 모국친구, 이웃)으로 구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4].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관계하는 것들, 즉 사회문화적 환경 및 인적, 물적의 모든 관계들을 사회적 지지체계에 보았다. 이러한 지지체계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돌봄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집중하고자 한다.

2.2 자녀 교육과 돌봄 관련 선행연구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를 양육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에 있어 직면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정보의 부족,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가족갈등 및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편견, 지지체계의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다[15-23].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며 자녀 교육과 돌봄에 있어 가장 어렵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이다. 특히, 의사소통의 문제, 자녀와 가족 간 정서,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3,15,18,20-25]. 장혼성은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경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강조하였다. 이중언어 사용 학생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가족관계 및 교우관계, 진로 및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에, 공교육 내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4].

자녀가 학령기에 이르면서 한국의 교육환경을 접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은 학부모 역할수행이 더해지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3,17,26,27]. 자녀가 교사나 교우관계에서 차별을 염려하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부모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교육정보의 부족, 일반 학부모와 교류의 어려움, 그리고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사회 젠더관점의 부모 역할은 우리 사회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과 다문화 가정 아버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에서 초국가주의 실천을 연구한 최정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 그리고 자녀양육에서 초국가주의 실천을 살펴보았다. 초국가주의 실천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데 하나의 원동력이며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는 도구적 역할을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은 외국인 어머니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유아의 정체성을 지지할 것을 강조하였다[15].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및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초청제도를 통해 자녀돌봄을 지원받는다. 모국가족의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돌봄 지원은 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두드러진다. 즉, 본국 가족초청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해소, 그리고 한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32,33].

최근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녀 교육이나 돌봄 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도, 양육 효능감, 스트레스, 어머니의 교육참여와 교육기관과의 관계 등을 주제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다[4,5,10,11]. 또한, 다문화가정 자

녀 교육과 돌봄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며 부정적인 경험들이 도출된 경향이 높다. 자녀 교육과 돌봄은 홀로 개인적으로만 행할 수 없는 일이므로 결혼이주여성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지지체계가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이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자녀 교육과 돌봄에 활용하며 상호 관계를 맺는지 그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경험 속에 내재된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교육과 돌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 지 내면의 생각까지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1 현상학적 질적연구

본 연구는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관점의 질적연구이다. 현상학은 체험적 또는 이론적 관찰이나 설명을 만들어내지 않고 체험한 세계에 대해 겪은 대로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경험을 겪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사물의 현상과 외양에 대해 연구하며 그것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8,29].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사태자체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의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현상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일상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28].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낌과 경험, 즉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상황적 구조기술과 참여자들 전체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기술로 통합해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탐색함에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

서 사회적 지지경험에 관한 현상을 탐색해보기 위해 한국인과 결혼하여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연구자와 심층면담을 위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인(한족) 2명, 베트남 4명으로 최종 6명의 결혼이주여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남편과 연애 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결혼하였고 참여자 모두 초혼이며 길게는 15년, 짧게는 2년의 결혼 생활 중이다. 자녀를 1명을 양육하는 참여자는 4명, 2명을 양육하는 참여자는 2명이며, 1~2세의 영유아기부터 5~7세의 미취학아동, 8세~12세의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양육 중이다. 연구자는 영유아기의 자녀 양육과 학령기의 교육을 더하여 돌봄의 영역으로 보고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어린 자녀부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 참여자들 중 3명은 결혼 전 한국에서 유학경험이 있고 3명의 연구 참여자는 자녀 돌봄과 양육을 위하여 모국의 친정엄마가 현재 한국에서 함께 동거 중에 있다. 또한, 베트남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대부분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 돌봄에 도움을 받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참여자	출신 국가	학력	결혼 기간	동거 가족	자녀수 (나이)	본인 직업
A	중국	대학원 졸업	15	배우자, 자녀	1 (12세)	방과후 강사
B	중국	고졸	14	배우자, 자녀	2 (12/9세)	주부
C	베트남	대학원 재학중	3	배우자, 자녀	1 (2세)	대학원생
D	베트남	대졸	2	배우자, 자녀, 친정엄마	1 (1세)	동번역
E	베트남	대학 재학중	8	배우자, 자녀/ 친정엄마/국 내거주	2 (8/5세)	동번역
F	베트남	대학 재학중	9	배우자, 자녀, 시어머니, 친정엄마	1 (7세)	동번역/ 다문화 강사

3.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면담기간은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이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세부 질문내용은 결혼 후 임신과 태교, 출산 및 산후조리의 경험, 자녀 양육 및 교육, 고향에서 자녀 교육과 돌봄의 문화차이, 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들만 개인정보 수집과 면담내용이 녹음됨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편한 장소에서 1회에 1시간 30분-3시간 정도, 상황에 따라 1회에서 3회가 수행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내용은 빠짐없이 전사하고 꼼꼼히 읽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면담에서 추가 질문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Giorgi의 분석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24]. 1단계는 전체 면담내용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필사된 내용을 여러 차례 정독하며, 2단계는 연구자료 전체를 연구주제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단위들을 구별하며 민감성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읽었다. 3단계는 모든 의미단위를 검토하고 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언어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하위구성 요소들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인 구성요소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며 경험의 본질을 도출하였다. Giorgi의 분석절차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24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고, 10개의 대주제로 구분하여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3.4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Giorgi가 제시한 접근성, 체계성, 적용성, 비판적 타당성의 4가지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선 접근성 충족을 위하여 자료 분석 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다문화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수 1인에게 전반적인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체계성 충족과 분석과정의 논리성을 위하여 Giorgi의 4단계 분석 절차를 지키며 결과 도출에 힘썼다. 적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

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들려주고 연구결과에 공감을 얻어 적용성을 이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결과가 정밀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본질에 대한 예외를 찾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6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정리한 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Table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의 사회적 지지경험 결과

범주	대주제	의미단위
가족	남편	① 생활의 모든 것을 남편과 함께 ② 남편의 한마디 뭐든지 할 수 있는 마법의 힘 ③ 자녀교육에 무심한 남편
	시댁가족	① 시부모님의 무한 자식사랑 ② 시어머니와 피할 수 없는 문화갈등 ③ 함께하는 가족
	친정가족	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친정엄마 ② 정서적으로 힘이 되는 친정가족
주변인	한국친구	① 참 좋은 선생님 ② 남편으로 넓어진 인간관계 ③ 자녀 교육과 돌봄의 자신감
	모국친구	① 자녀교육의 수다방 ② 자녀돌봄에 동병상련
한국 사회 환경	온-오프 라인 네트워크	① 자녀돌봄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 ② 타국에서(한국서) 만나는 모국 종교 공동체
	역이민도 고려	① 자녀 미래를 위해 모국으로 ② 자녀의 공부환경, 엄마들의 숙제
	언어사용	① 뱃줄과도 같은 모국어 ② 한국어, 곧 자신감
법과 제도	공공기관	① 필수코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② 교육에 꼭 필요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현명한 엄마의 저렴한 사교육
	국가정책	① 자녀 교육과 돌봄에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② 귀화, 선택의 기로에서

4.1 가족

가족의 지지체계는 남편, 시댁가족, 친정가족으로 정리된다. 낯선 타국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인들은 남편과 시댁가족들이다. 남편은 한국말이 서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초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지지는 자녀를 키우며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법과도 같지만 종종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남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 지지도 남편과 같이 긍정적인 지지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될 때가 있다.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경험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은 경험이 풍부한 시부모의 교육과 돌봄 방법을 따라가게 되는데 동화주의적 사회환경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하여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친정엄마의 자녀 양육과 가사도움은 연구 참여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외할머니는 손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모국어와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어 자녀들이 엄마나라를 이해하고 이중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였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라는 존재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정서적인 도움에 더 민감하게 다가온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임을 알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4.1.1 남편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의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 일상생활이나 자녀 돌봄에서 부족한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남편 덕분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 교육에서 필수적인 한국어나 한자 교육에 남편이 도움을 주지 않아 야속했다고 토로하였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자녀 돌봄에서 영유아기에 양육 문제와

한국어 교육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길 기대하였으나 무심한 남편에게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① 생활의 모든 것을 남편과 함께

“(주말부부) 매주 남편이 왔으니까 병원이나 이런 거는 매번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그때는 말도 못했거든요. 잘 못해요. 남편이 모든 걸 다 도와주었죠.” (참여자 A)

② 남편의 한마디, 뭐든지 할 수 있는 마법의 힘

“우리 남편이 하고 싶은거 원하는거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응원해줘요. (중략) 자신있으면 해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그만해도 된다고 (중략) 신랑이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용기가 생겨요.” (참여자 E)

③ 자녀교육에 무심한 남편

“제가 한자 잘 모르잖아요. (중략) 맨날 엄마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한국말 잘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주는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신랑은 저한테는 한국말 좀 배워라 (배워서) 얘기한테 좀 설명해주시. 그거 좀 답답해요.” (참여자 E)

4.1.2 시댁가족

연구 참여자들에게 시댁 가족들도 다양한 형태로 자녀 교육과 돌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어머니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원의 원천이지만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피할 수 없는 문화갈등을 겪게 된다. 참여자 C는 형님(남편누나)이 간호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 의학적, 영양 관련 도움을 받고 있으며 참여자 E 경우는 여행이라는 매개를 통해 본인을 배려해주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고향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며 시가족에게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며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

① 시부모님의 무한 자식사랑

“애기 양육정보는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책 다 사주셨어요. 이유식 어떻게 만드는지 모유수유 어떻게 하는지 얘기도 어떻게 키우는지 책 다 사 주셨어요. 엄청 많이... 시리즈로 열 몇 권 계속 택배가 왔어요.” (참여자 D)

② 시어머니와 피할 수 없는 문화갈등

“아들 경우는 그때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애기한테 베트남말 가르치지 마라. 애기 헛갈리기 때문에 애기 받음 안 좋고 애기 힘들기 때문에 시어머니 좀 애기 커서 가르쳐줘라. (중략) 사실 좀 속상했어요.” (참여자 E)

③ 함께하는 가족

“가족 모두 같이 시부모님 같이 베트남에 3번인가 갔어요. 형님 큰고모부 아가씨 작은 고모부 가족 모두 매년마다 갔어요. (중략) 제가 베트남이 고향이라서 저 위해 생각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아마도 베트남 음식 먹고 싶지 않나 생각해주시니까 우리 베트남 가져라고 해요.” (참여자 E)

4.1.3 친정가족

친정엄마는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친정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모국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하였다. 아이들은 엄마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D, E, F는 친정엄마와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친정가족들이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친정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들의 교육과 돌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모와 친정엄마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친정엄마

“엄마는 자식들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지 애기 봐주고 싶어서 (중략) 엄마가 생활하는 거 필요한 거 제가 다 사드려요. 엄마가 있어서 좋죠.” (참여자 D)

“애들이 중국말 못 알아들어도 엄마가 중국말 많이 해 아이고 예쁘다 중국말로 ‘편하오 칸’ 이렇게 말해 그럼 애들도 따라하잖아 (중략)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한테 많이 고마워요.” (참여자 B)

“애기는 주로 시어머니가 많이 봐주셨고 친정엄마는 우리집에서 같이 지내고 제가 주로 힘들 때 힘든 거 있으면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고 했어요. (중략) 애기 키우는 게 엄마 방식이랑 시어머니 방식이랑 사실 다르거든요.” (참여자 F)

참여자들이 친정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또는 친정 가족들과 자주 교류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엄마가 모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며 자연스럽게 엄마 모국어에 관심을 갖고 따라하게 된다. 특히 친정엄마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모국의 자장가를 불러 준다거나 모국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중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모의 양육간섭은 양육문화가 다른 친정엄마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F는 친정엄마가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초청비자로 한국에 왔지만 근처에 사는 시모의 양육간섭을 피할 수 없었다. 주로 낮 시간에 시모가 자녀 양육을 도와주면 친정엄마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자녀 양육방법을 협상하였다.

② 정서적으로 힘이 되는 친정가족

“친정부모님한테 아이키울 때 실질적인 도움받은 건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사랑해주는 마음은 애가 다 알거든요. (중략) 그런 정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자기는 할 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받은거 느낄 수 있잖아요.” (참여자 A)

“우리 가족은 자기 감정을 많이 얘기 안해요. 친정식구들이.. 지금 영상통화하면 괜찮다고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안 주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해줘요. (중략)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참여자 C)

4.2 주변인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으로 결혼이주하여 원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에서 만난 한국친구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선생님이나 남편 또는 자녀를 통해 넓어진 인간관계로 타문화에서 적응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한국의 문화와 교육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매개체이다. 지인들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들은 자녀 교육과 돌봄에 큰 도움이 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또한, 이들은 낯선 한국문화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모국친구들을 통해 한국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익숙한 모국

어로 더 자세한 교육과 양육 정보를 얻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모국친구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정서적 안정감과 정체성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이주여성이라는 공통분모는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4.2.1 한국친구

한국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힘들지 않게 격려도 해준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알게 된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문화 전반적인 생활 적응과 자녀를 잘 교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남편 친구들에게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참여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고 자녀를 통하여 팬층은 양육자로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① 참 좋은 선생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알게 된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베트남어 가르쳤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임신할 때 그냥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릴까봐 (중략) 핑계로 베트남어 배우고 싶다고 하시고 한국말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 돈버는 거는 다음에 생각하고 한국어를 잘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참여자 C)

② 남편으로 넓어진 인간관계

“남편친구도 결혼시기 비슷해서 애도 한 살 두 살 차이 밖에 없어요. (중략) 지금 애들 다 있으니깐 애들 이야기 많이 해요. 애기 이유식 어떻게 하고 경험있는 사람 큰 애 있는 사람은 학원 다니는거나 또 애기 언어 늦으면 무조건 바로 치료 받아야하고 (중략) 그런 교육적인 정보 많은 이야기 듣고 아.. 그렇구나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참여자 C)

③ 아이를 통해 생기는 자신감

“처음에 약간 아이가 한국어를 못 할까봐 좀 걱정했지요 ‘**는 한국말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의사표현을 저렇게 하지..’ 그럼 저도 그런데에서 자신감을 얻고 (중략) **엄마는 중국어 선생님이고 (중략) 차별보다 약간 부러워하는 거 있었어요.” (참여자 A)

4.2.2 모국친구

타문화에서 만나는 모국공동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매우 큰 지지체계이다.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받으며 교육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타문화에서 자녀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더 끈끈한 관계맺음을 통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① 자녀교육의 수다방

“여기 **시장 옆에 베트남가게 많은데 맨날 장보러 갈 때 언니들도 만나서 이야기해요. 재미있어요. 생활이야기도 하고 애기들 이야기도 하고 장사 잘되는지 그런것도 물어보고.. (중략) 저는 가끔 여기 친한 언니 애들 영어 과외해요. 저 전공이 영어영문학이거든요.” (참여자 D)

② 자녀돌봄에 동병상련

“결혼이주여성들도 거의 비슷해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가서 출산하고 문화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몰라요. 신랑한테 소통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 많아요. 문화가 달라서 제일 힘든거 같아요. 시댁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게 제일 어려운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참여자 E)

4.3 한국사회와 환경

통신의 발달은 원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하는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제공해준다. 특히 영상통화나 SNS는 먼거리에서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고향의 음식을 시켜 먹거나 고향의 정이 그리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종교 공동체는 타국에서 힘든 생활에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국으로 역이민을 고민하기도 하는데 치열한 한국의 교육 현실과 비싼 사교육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계층화된 한국 남편들의 생각으로 자녀의 교육을 고려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아내를 통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국의 국제학교를 이용할 계획이거나 모국

에 땅을 사고 투자하고 있었다. 반면, 자녀의 교육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언어이다. 언어는 문화소통의 수단으로 교육을 넘어 모국의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을 가르치는 계기가 된다. 다만 모국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언어교육의 적극성을 보여주며 가족의 문화가 어떤가에 따라 모국어의 습득양상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엄마의 문화를 지지하는 가족은 자연스러운 모국어 노출로 자녀들의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4.3.1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인터넷의 발달은 멀리 있는 친정가족과 모국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므로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해 쉽게 활용되는 도구가 된다. 인터넷 속 다양한 교육정보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매일 모국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은 자녀들이 외가친족들과 연대의식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며 SNS를 통해 모국음식을 시켜먹거나 모국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모국에 대한 향수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종교공동체는 외롭지 않게 정서적인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① 자녀돌봄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

“애들 육아정보는 유튜브 많이 봐요. 훈육할 때 오은영 박사님이 많이 도움이 돼요.” (참여자 F)

“가끔 베트남 음식 먹고 싶으면 여기 베트남 음식 파는 사람 많아요. 그냥 식당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 만들어서 주로 택배 보내요. 페이스북에서 (중략) 임신할 때는 집밥 먹고 싶으면 꼭 시켜 먹어야 해요.” (참여자 C)

“중국에 가족들이랑 자주 연락하죠. 인터넷 영상통화 이거 정말 좋아요. (중략)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 근데 영상통화하니깐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깐 아니면 너무 보고 싶잖아. 이렇게 얼마나 좋아. 엄마가 (아이들)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중국 친구들이랑 영상통화, 그리고 위챗도 하고” (참여자 B)

② 타국에서(한국서) 만나는 모국 종교 공동체
 “임신했을 때 제가 교회다니거든요 (중략) 음식 있으면 주시고 교인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았지요.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참여자 A)

“저번에 우리 애기 베트남 미사 때 유아세례 받았어요. 결혼식도 한국성당에서 했는데 그때는 한국 미사였어요. 근데 우리 애기는 시어머니가 허락해주셔서 베트남 미사 때 세례 받았어요.” (참여자 D)

4.3.2 역이민도 고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모국으로 역이민을 고민하며 모국의 국제학교를 이용할 계획을 하거나 모국에 땅을 사고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모국의 사회적 자본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치열한 한국의 교육현실과 비싼 사교육을 고려한 모습으로 보인다. 반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라고 한국의 교육제도가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① 자녀 미래를 위해 모국으로

“남편은 나중에 베트남에 갈 계획이 있어요. 한국 요즘 세급 너무 많이 올라갔고 (중략) 베트남에 국제학교 있어요. 애기는 국제학교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땅 투자하고 있어요.” (참여자 D)

“애들이 중국에 유학가고 싶어 하면 같이 가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신랑이 중국가서 살까하고 말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더 커서 유학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친척 다 중국에 있고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도 가잖아요. 외가집이 중국인데 얼마나 좋아요.” (참여자 B)

② 자녀의 공부환경, 엄마들의 숙제

“애들은 한국에서 교육 더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돼요. (중략) 좀 비교하면 베트남은 좀 불편해요.” (참여자 E)

“나중에 베트남 유학은 제 생각은 한국이 더 좋아요. 베트남보다. 베트남은 어린이집에 가면 자기돈 내야 돼요. 여기는 국가가 다 지원해주잖아요. (중략) 베트남 사람도 한국유학 오는데 굳이 더 좋은 나라 가야지.” (참여자 C)

참여자 D와 B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역이민도 진중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역이민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국에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한국사회에서 모국 언어의 유용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참여자 E와 C는 모국보다 한국의 교육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 자녀가 모국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길 희망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높은 학업성취와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4.3.3 언어사용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가 엄마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뱃줄처럼 자녀와 엄마가 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이며 고단한 자녀 교육과 돌봄 과정에서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국언어가 사회적 위치에 따라 언어교육의 적극성을 보여주며 가족의 문화가 어떤가에 따라 모국언어의 습득양상이 달라졌다. 연구 참여자 A는 자녀와 정서적 깊은 교류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의 모국어 습득임을 강조하였고 연구 참여자 C와 F는 자녀의 한국어 언어발달을 걱정하며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엄마가 외국인으로 혹은 자녀가 받게 될 차별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① 뱃줄과도 같은 모국어

“에는 중국어 잘해요. 중국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 못해도 중국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략) 엄마는 중국 사람이야 저는 어떻게 해도 한국어 잘해도 한국 사람처럼 못해요. 그리고 고급단어이나 사회문제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어떤 분야는 그냥 일반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은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중략) 우리 딸은 모르면 우리 소통 안 돼요. 엄마는 중국 사람이야 중국어로만 될 수 있어요.” (참여자 A)

② 한국어, 곧 자신감

“제가 얘기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에는 말

부터 한국사람처럼 제대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그래서 먼저 한국어부터 가르치고 (중략) 그냥 말 안 통해서 몸으로 행동해요. 친구 때리고 화내고 답답하니까 (중략) 언어 중요해요 의사소통 집중적으로 그거 먼저 하고...” (참여자 C)

“우선은 그래도 한국어를 먼저.. 한국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트남을 가든 뒤 글로벌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중략) 지금은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문화 그런 거가 지금 얘기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지금 얘기 한국어발음보다 별로 급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F)

언어사용은 참여자들이 어떠한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름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참여자 A는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녀 역시 중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참여자 C와 F는 베트남인의 정체성보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4 법과 제도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고 발전했다. 2000년도 초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구 참여자에게 자녀를 교육하고 돌봄에 있어 필수적인 기관이다.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교육과 돌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다.

한국의 특별한 산후조리문화인 산후조리원은 자녀 양육에 빠질 수 없는 공적 지지기관이며, 어린이집은 연구 참여자가 자녀를 키우며 의지하게 되는 필수 기관 중 하나이다. 취업을 위해 어린 자녀를 위탁해야 하는 부모입장에서 어린이집의 도움이 필요하며 자녀 교육과 돌봄에 경험이 부족한 연구 참여자에게 어린이집 교사의 긍정적인 한마디는 양육 자신감을 갖게 한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참여자는 자녀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찾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싼 사교육 대신 문화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이용해 똑똑한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문화교육 시스템은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국가정책들은 자녀 교육과 돌봄의 공적 지지체제로 자녀를 출산하면 양육 지원금을 주거나 교육비 지원의 국가장학금이나 바우처 등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녀 교육과 돌봄에 관한 국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귀화는 연구 참여자에게 공적인 사회적 지지체제로서 큰 역할을 한다.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인 부모가 되어 자녀 교육과 돌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녀들이 받을지도 모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비책으로 귀화를 선택하기도 한다. 한국국적 취득과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며 편견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한다. 반면에 귀화로 인해 갖는 새로운 정체성과 모국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함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4.1 자녀 교육과 돌봄 지원 기관

한국의 특별한 산후조리문화인 산후조리원은 연구 참여자들이 출산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산후조리원에서 자녀 양육과 돌봄의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면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양육자로서 자신감을 얻게 도와주는 기관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자녀가 커가면서 공공 교육기관을 활용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사교육을 실시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

① 필수코스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잘해줬어요. 말할 때도 천천히 말해주고 모유수유 어떻게 하는지도 천천히 가르쳐주고 맛사지도 하고.” (참여자 D)

“애기 처음에 어린이집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 저는 울어요. 우니까 선생님들이 어머니 괜찮아요. 애기 잘 낳다고 (중략) 애 키우는데 자신감은 그때 선생님이 많이 주셨거든요.” (참여자 A)

② 교육에 꼭 필요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임 있어요. (중략) 우리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중략) 애들 교육 맨날 아빠한테 다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도 받고 애들 한글 수업도 있고 베트남어 수업도 있고 (중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완전 베트남처럼 ‘땃(설날)’을 지내요. 애들도 같이 가서 그런 문화도 보고 같이 참여도 하고” (참여자 E)

③ 현명한 엄마의 저렴한 사교육

“**도시는 운동 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체육관이 있는 것도 멀지 않고 무료로 제공되는 운동 프로그램도 많고 수영도 삼만원 사만원 정도. 싸게 애가 레슨받을 수 있고 사회서비스가 좋아요. (중략) 책을 찾을 때는 도서관에 바로 가요. 무조건 도서관에 가요.” (참여자 A)

4.4.2 국가정책

한국정부는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국에는 없거나 다른 국가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하며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차별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 사람이 되고자 귀화를 선택하지만 모국 가족을 걱정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① 자녀 교육과 돌봄에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한국은 지금 한 달에 20만원인가 정부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베트남은 그런거 없어요. 한국은 그런 정부 지원금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F)

“출산할 때 병원가도 일반병원 (중략) 저한테는 일반병원가도 만족해요. 베트남은 이만큼이면 대개 국제병원이에요. 돈 엄청 많이 내요. (중략) 베트남은 이런 시설하고 의사, 전문가 있는 시설하고 서비스이면 보통 엄청 많이 내요. 베트남에서 애 낳을 때 이런 서비스 별로 없어요.” (참여자 C)

“학교에 제가 지금 한국 국적이라서 국가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다문화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중략) 베트남은 국가장학금 없어요. 베트남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개인으로 등록금 다 내야 해요. 등록금도 비싸고.. 한국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좋아요. 다문화가족들 장학금도 있어서 공부하기 아주 좋은 거죠.” (참여자 E)

② 귀화, 선택의 기로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 모아서 애들한테 소개해주잖아 요. **엄마 제가 외국사람 이름이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 때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걱정하고 다른 애들 우리 아들이랑 안 놀까봐 그래서 제가 무조건 귀화해야 해 한국 국적 취득해야 해 무조건 한국이름으로 바꿔야해 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참여자 E)

“저는 중국사람이니가 결혼하고도 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중국에 계세요. 언제든 가야되거든요. 부모님 모실 일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어야지 이거 중국 여권 바꾸면 안 되거든요.” (참여자 A)

“한국에 온 지 5년 후인가 그때 귀화했어요. 귀화한건 애들 때문에 애들 위해서 귀화했어요. (중략) 귀화한 게 좀 후회할 때도 있고 다시 중국 국적으로 못하는 거 아닌 데 회복하는 게 좀 힘들어요. (중략) 지금 중국에 갈 때마다 비자 다시 만들어야 돼서 너무 불편해요.” (참여자 B)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을 탐색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과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6명의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경험담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미시적 체계의 가족, 주변인 그리고 거시적 체계의 사회와 문화적 환경, 법과 제도로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가족은 낯선 환경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회적 지지체계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문화적 배경과 다른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3]. 가족들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과 격려는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무심한 남편의 한마디나 시부모와 문화갈등도 함께 경험하며 소극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출산 및 육아의 과정에서 문화 차이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시부모와 문화갈등이 심하면 시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자녀 양육

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갈등이 없어진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16,19]

친정가족과 친정부모는 존재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 아이들은 엄마의 모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이는 친정가족과 모국 공동체 모임을 통해 양육정보를 얻고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15,23]. 그러나 자녀양육 도움을 위해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친정엄마와 시모의 양육방법이 달라 문화적 갈등이 생긴다. 양가부모들의 문화갈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며 시모와의 양육갈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친정엄마는 낮시간에 일을 하고 저녁 이후 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양육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초청된 친정가족의 체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며 시부모는 며느리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갈등이 존재하지만 남편의 지지는 한국 생활에서 갈등과 조정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며 결혼이주여성은 가족들의 지지에 고마움을 느끼며 양육자 어머니로 자리매김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은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도움을 주며 육아나 자녀 양육에 대한 소중한 정보원으로 어려움에서 지지의 원천이라는 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한국가족과 한국사회가 이들의 양육을 더욱 격려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더 잘 양육하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되새겨봐야 한다[15].

둘째, 주변인으로 한국친구와 모국친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변인이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친구의 역할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연구와 비슷하다[18]. 특히 모국친구의 관계는 끈끈한 연대 의식을 느끼며 결혼이주라는 공통분모가 공존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서로 지지해 주며 다른 지지체계보다 정서적 안정감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을 피하기 위해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다[17,18,20].

미시적 체계로 사회적 지지의 주요대상이 가족과 친구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동질집단에 대한 지지체계를 좀 더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조모임을 통해 자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자녀 교육과 돌봄에 필수적인 한국사회 정보를 습득하고 추후 자녀의 사회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 환경에서 통신의 발달로 영상통화나 SNS를 통한 네트워크는 모국 가족이나 친구들의 정서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 영상통화는 먼 거리에서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고 임신하여 모국음식이 먹고 싶을 때 SNS를 통하여 음식을 배달시키고, 필요한 물건을 모국에서 전해 받거나 고향의 정이 그리울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인터넷의 활용으로 정보검색이 용이해져 모국의 교육과 양육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모국식 양육정보에만 접근하면 양육행동에서 한국인 가족과 더 차별화될 수 있고 온라인상 양육정보의 질이 낮다는 결과를 볼 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육아 정보의 신뢰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16].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들의 교육을 중요시여긴다[17,20,30]. 가정의 소비지출에서도 자녀의 교육이 우선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부담 및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와 교육현실에 염려하여 학교와 비용적 측면에서 자녀교육과 미래를 위해 역이민도 고민하였다. 이는 한국보다 차별이 적은 아내의 모국자원을 활용하려는 한국 남편들의 생각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결혼이주여성이 역이민을 고민하는 것은 자녀의 정체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노출시키고 정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모국을 방문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20,22].

참여자들은 특히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녀가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동시에 모국어를 가르쳐 본인과 모국친지들과 모국어로 소통하며 이중문화정체성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18,25]. 또한, 자녀가 보다 나은 교육을 받으며 이중문화의 재능을 발휘하며 한국사회 내 주류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의 표출이다. 이중언어 교육은 자녀가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자녀양육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모국어 사용을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점점 늘어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학교 공교육에서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의 현실상 이중언어로 영어에 대한 교육이 우세하며 중국어와 일본어도 비교적 이중언어로서 자리매김 되어가나 한국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베트남출신 이민자들을 고려할 때 이중언어로서 베트남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비하다. 베트남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가 이중언어로서 인식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거시적인 차원의 국가정책과 제도적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든든한 지지체계, 자녀출산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자녀돌봄의 기능을 하며 참여자들의 자녀돌봄에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적 지지체계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자녀의 한국어 발음을 걱정하여 이른 시기에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은 불안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다양한 정책적 지지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혜택으로 자녀 양육을 누림으로 이해한다[21]. 무료로 제공되는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활동으로 자녀 돌봄의 공백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참여자들의 한국국적 취득과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은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성의 표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귀화는 자녀를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편견에 대비하여 모국문화와 역사, 모국어를 가르쳐 학령기 자녀들에게 준비교육을 시킨다거나 학업성취를 지원하여 주류 경험으로서 공부를 강조한다는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다[22,20]. 그러나 자녀를 걱정하지만 귀화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모국가족의 도움으로 모국의 사회복지혜택(출산장려금, 양육보조금 등)을 받는 등 모국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연구와는 조금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31].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결혼이주여성이 이주민으로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간소화된 귀화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자녀를 위한 모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과 돌봄은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는 이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돕고 산업 생산인력으로 자립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 된다. 궁극적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한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단초로서 작동할 것이며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 사회적 지지를 심층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내면의 생각까지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거시적 차원의 국가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가족과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서, 심리적 차원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돌봄도 거시적 차원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므로 촘촘한 서포트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모임이나 지원 서비스는 모임에 참여나 정보접촉이 가능한 이들을만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교육과 양육을 위한 정보나 서비스 활용이 차단된 경우도 많다. 한부모 또는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패턴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시적 차원으로,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수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일반인과 업무 담당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다문화교육과 가족대상 부모교육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나라의 문화 이해 교육은 가족의 문화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풍부한 사회적 지지 경험을 도출하였으나 모든 이주여성의 경험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 연구는 국가별, 지역별로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양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 활용은 어떠한지도 세밀하게 분석하여 추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6월호, 2023.08.07.(검색),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90437069088100
- [2] 법무부, 출입국 통계,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21, 2023.08.07.(검색), 시군구별 유형별 외국인주민 자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025_A041_A&conn_path=I2
- [4] 남부현, 김옥남(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질적연구: 수도권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pp 113-142.
- [4] 홍은미, 신승연(201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 와 양육스트레스”, *다문화와 평화*, 9(3), pp 101-121.
- [5] 최미영(2019), “결혼이주여성의 주관적인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8(2), pp 21-39.
- [6] 윤연숙(2003), “유급 ‘아동 보살핌’ 노동에 관한 연구: 보살핌의 제도화에 따른 보육교사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이가형, 정선아(2015), “돌봄의 관점에서 유아교사의 삶의 특성”, *한국교원교육연구*, 32(4), pp 307-326.
- [8] 이민하(2019), “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유아교사의 모성적 돌봄 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Gottfried, B. H.(1983), “Social support strateg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10] 정명희(2013),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모효능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pp 257-276.
- [11] 김갑순, 김정화(2018),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코칭연구*, 11(3), pp 93-112.
- [12]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 [13] Snowden, A. W., Canmeron, S., & Dunham, K. (1994),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coping resource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functioning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6(3), pp 63-76.
- [14] Cochran, M. M., and Brass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pp 601-616.
- [15] 최정아(2022), “필리핀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삶에서 나타난 초국가주의 실천과 자녀양육”,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트투이홍능(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탐색”, *중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김유나(2020),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계 중국인 출신 어머니의 한국 유아교육문화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강하라(2019), “유아기 첫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김미현(2019),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6, pp 147-180.
- [20] 이지연(2018),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 있는 이중민족사회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1] 황 정(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서양임(2014), “일본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문화심리적 현상”,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봉진영(201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장훈성(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5]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정미진(2017),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할 인식 및 학부모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이문희(2014), “결혼이주여성의 학부모 역할 경험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신경립, 조명옥, 양진향 외(2004),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9] 남부현, 오정아(2013),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pp 131-154.
- [30] 최운선, 홍기순(2017),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인식과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4), pp 585-603.
- [31] 김미연(2011), “‘축복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적 실천

과 적응: 강화도 A군의 통일교 일본여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육수현, 허정원(2020), “본국가족초청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3), pp 81-129.
- [33] 송유진, 이윤석(2021),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 결혼이주여성 본국 가족과의 동거 현황과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60(2), pp 331-355.

정 영 미 (Jung, Young Mi)



- 2022년 1월~현재: 영남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강사
- 2017년 2월: 선문대학교 한국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 E-Mail: veatha@naver.com

남 부 현 (Nam, Bu Hyun)



- 2023년 현재: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다문화교육) 교수
- 2009년 5월: 미국 아거시대학교 교육학 박사(Argosy University, MN, USA)
- 관심분야: 다문화교육, 이주민 문화적응,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법
- E-Mail: namx0015@sunmoon.ac.kr